

남북 우리말의 구어와 문어*

홍종선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Abstract

Hong, Jongseon. 2020. "A Study of Spoken and Written Expressions of South and North Korean".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28(1). 247~270 In this study, the linguistic features of spoken and written expressions of South and North Korean were examined through the analysis of quasi-spoken language corpora. The Korean language can be understood better through a broader study of spoken language than written language. In this paper, the frequencies of the use of parts of speech, transformative endings, the forms of ending sentences/utterances, types of sentences/utterances, degree adverbs used as the meaning 'very' were researched. The language expressions of South and North Korean have a lot in common, but there are not a few differences in part. The differences appear more in colloquialism than in written language. The exact understanding of them will be possible by building a very large scale of spoken and written corpus of South and North Korean.

Keywords: South and North Korean, spoken and written Korean, ending of utterance, degree adverbs, corpus

* 이 연구는 2019년 가을 한국사회언어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기조강연 내용을 보완한 논문이다. 특히 정도 부사의 빈도 등에서 조사 자료의 보완이 많았다.
이 연구는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1019175).

1. 머리말

사회 각계에서는 남북통일을 기대하며 크고 작은 여러 가지의 준비를 하고 있다. 통일을 전후하여 그리고 통일 이후 계속될 남북 언중들이 자연스럽게 조화로운 언어생활을 하기 위하여 국어학계에서도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언어는 사회생활의 기반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도구이며 동시에 인간의 정신과 정서를 구체화하는 삶의 필수 요건이므로 통일 사회 안에서 구사되는 우리말은 남과 북이 공통적으로 잘 이해하고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남과 북은 광복 직후 70여 년 동안의 분단을 겪고 이질적인 사회 환경에서 지내면서 양측 언어 서로 간에 적지 않은 차이가 생기었는데, 이를 메우기 위한 연구와 작업도 조금씩이나마 이루어지고 있다. 다행히 양쪽의 언어에서 보이는 차이는 언어 소통에 심각할 만큼 지장을 주는 이질성 정도는 아니어서 일상적인 언어생활을 조심스레 이어갈 수는 있지만, 언어 수행 장면 곳곳에서 불거지는 오해나 간극은 외면할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그 동안 국어학계에서 남과 북의 우리말을 언급하거나 연구할 때에는 으레 서로 달리 쓰이는 어휘 목록들을 들어 그 의미의 차이를 유형화하는 등의 접근이 있었고 간혹 구절 차원에서도 대개는 다소 다른 형태나 용법을 드는 정도였다. 이들은 모두 남북통일을 원만하게 이루기 위해 남과 북의 언어를 서로 알고 이해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국토와 정치적 통일 못지않게 정서적으로 사회 문화의 자연스럽게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남과 북의 우리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말에 대해 더욱 다양한 측면에서 깊이 있는 고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남북 우리말을 비교할 때에 그 말을 마치 시험관 속에서 낱개로 표본화하여 정제된 형태로 보는 듯한 접근을 많이 하였다. 말이란 그것이 하나의 문장은 물론 단어나 문법소라 하더라도 사회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담화 맥락 속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화행과 화용적 환경 정보를 도입하고 사회 문화적인 요인들을 고려해야 올바른 해석이 가능하

다. 이러한 정보 가운데에서 커다란 1차 분류 기준으로 구어와 문어의 구분을 들 수 있다.

근래에는 문어의 한계를 넘어 구어의 문법에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관심은 마땅히 북쪽의 우리말에도 닿아야 한다. 북쪽의 우리말에 대해선 아직 원천 자료를 충분히 구하기가 쉽지 않고 음성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구어 자료는 더욱 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때문으로 북쪽의 우리말 연구는 거의가 문헌에 나타난 문어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제 접근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고 개발하여 북쪽의 구어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구어에는 문어에 비해 그것이 수행되는 사회 실태와 개인적 변수가 더욱 적나라하게 반영되므로 광복 이후 남북 언어에 혼입된 양측의 변화와 차이가 문어보다 구어에서 더 많이 나타나게 된다. 본고에서는 남과 북에서 사용되는 구어와 문어를 대조하는 고찰을 하기로 하는데, 지금까지의 다른 연구에서 거의 문어를 대상으로 해 왔으므로 여기에서는 구어에 대해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기로 한다. 역시 꼭 필요한 음성 언어에는 이르지 못하고 문자로 쓰인 구어적 문어를 대상으로 하는 한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앞으로 남북의 우리말에 대한 연구가 더욱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문어와 구어의 차이에 대한 고찰은 매우 폭넓은 영역을 가지므로 이에 따라 연구의 진행도 수많은 연구 인력이 오랜 기간 동안 관심을 가지고 차근 차근 성과를 쌓아 나가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우선 몇 가지 언어 현상에 대해 아주 한정적인 고찰을 개인적으로 하면서 남북 우리말의 문어와 구어에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를 살핍으로써, 현재 이러한 연구에서 보이는 한계와 이를 극복하고 다수가 함께 참여하여 본격적으로 남북 우리말을 고찰하는 연구가 필요함을 실제적으로 보이고자 한다.

2. 남북 우리말 구어의 자료와 연구

언어 연구는 언어 자료를 충실하게 확보하여 이를 활용하면서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근래의 생성 문법에서는 다소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구어 연구에서는 충분한 언어 자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남과 북의 우리말 구어를 연구할 때에 우선 크게 느끼는 한계가 연구자들이 북쪽의 구어 자료 특히 (음성 형태의) 자연/자유 발화 자료를 확보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접할 수 있는 음성 자료는 ‘통일방송’에서 제공하는 조선중앙TV 등이 방송하였던 자료나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서 보는 영화 정도인데, 이들은 거의가 사전에 집필한 대본에 의해 이루어진 영상이라서 자유 발화라고 말할 수가 없다. 방송된 드라마, 뉴스, 대담의 영상이나 영화를 통하여 매체 언어를 시청하거나 희곡 또는 소설 작품에 있는 대화문 등을 읽으며 간접적으로나마 북쪽 우리말의 준구어 모습을 찾는 것이 현재 할 수 있는 한정적인 접근 방법이다. 방송 드라마나 영화의 동영상 음성 자료 역시 대본이 전제된 것이므로, 드라마 대본과 희곡 작품이 언어 실태 분석에 있어서 동영상 음성 자료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도 남과 북의 구어를 비교하기 위해 남과 북의 방송 대본과 희곡 그리고 소설을 언어 비교 자료로 택하였다. 본고에서는 남북어의 음성·음운은 고찰 영역으로 넣지 않았으므로 방송 대본이나 희곡 작품이 그 성격상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본 것이다. 또한 구어와 문어의 비교를 위해 소설 몇 편씩을 택하였는데, 같은 작가에 의해 한 작품 안에서 실현된 문어(지문, 설명문)와 구어(대화문)의 차이를 대비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¹⁾ 남쪽의 언어에서는 음성 언어 코퍼스도 일부 구축되어 있으나 남과 북의 우리말을 동질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남쪽만의 자연 발화로서의 음성 언어는 진정한 구어이지만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구어에 대해 남과 북에서 최근 들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전까지 남과 북 모두 국어학 연구가 거의 문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러한 성격은 아

1) ‘구어’의 개념이나 범위는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구어란 음성 언어에 한정한다고 본다. 즉 발화된 음성을 전사한 문서도 ‘구어적 문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북쪽의 자연 발화 음성 언어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음성 발화를 전제하는 대본이나 희곡을 대상으로 구어의 특성을 논의하기로 한다. 이러한 자료들은 실제 구어라기보다 준구어의 성격을 가지며 특정한 작가가 인식하는 ‘상상의 구어’라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다양한 여러 편을 대상으로 하여 이러한 한계를 줄이기로 한다.

직도 남아있다. 이는 물론 한국어학뿐만 아니라 외국의 언어학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실제성과 현실성을 고려한다면 일상적인 생활어로서의 구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워낙 많이 이루어진 문어 중심 연구는 제외하고 남과 북에서 전개한 우리말 구어 연구만을 간략히 보기로 한다.

일찍이 노대규(1996)에서 우리말의 구어(입말)에 대한 관심을 보였지만 남쪽에서 구어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2000년대에 들어 구어 코퍼스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연구들이 나오면서부터이다. 국립국어원에서는 ‘21세기세종계획’의 일부로서 구축된 구어 코퍼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음성 파일을 이용할 수 없다. 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을 중심으로 음성 언어로 수집한 균형 코퍼스인 ‘연세 구어 말뭉치’와 한양대 한국교육문제연구소에서 구축한 연령별 구어 코퍼스, 이 밖에 고려대 음성언어센터, 원광대학교, 울산대학교, ETRI, KAIST 또는 각 개인들이 구축하고 있는 음성 코퍼스들이 있지만, 이들은 모두 소속 연구원 등 극히 제한된 일부 범위에서만 이용이 가능하여 국어학계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금년부터 시작한 국립국어원의 ‘국어 빅데이터(말뭉치) 구축 사업’은 매우 큰 규모로, 구어 코퍼스 구축에도 많은 진전이 있을 것을 기대하게 한다.²⁾ 코퍼스는 원시 자료를 모으는 것과 더불어 분석 자료를 구축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현재 연세대와 고려대, KAIST 등에서는 구어 코퍼스의 표지달기를 각자 진행하여 그 표지 목록(tagging list)이 전혀 다르다. 코퍼스가 학계나 산업계 등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음성, 형태, 통사, 의미 등의 표지달기 목록과 내용에 대한 공동의 연구와 결과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근래에는 전통적인 구어와 문어 외에 전산 언어도 또 하나의 영역으로 존재한다. 전산 언어는 웹이나 앱 등 전산 매체에서 통용되는 언어로, 이미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적인 언어생활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 있으며 앞으로

2) ‘연세 말뭉치’와 ‘고려대 말모듬’ 및 ‘21세기 세종계획 균형 말뭉치’는 다 균형 코퍼스라 이름하였지만 이들에서 구어 자료는 모두 10~12% 정도이며, 그것도 준구어가 대다수였다. 실제의 언어생활을 고려한다면 전체 코퍼스에서 구어 자료가 과반수를 차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2019년 국립국어원의 ‘국어 빅데이터 구축사업’에서도 문어에 비해 구어는 코퍼스 구축 비중이 1/10도 되지 못한다. 아직도 구어에 대한 학계의 인식이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산 언어는 구어와 문어의 속성을 각각 일부 가지면서 또 그들과 좀 달리 호기심, 간략화, 은닉성, 일탈 욕구 등에 따르는 색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언어생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언어학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아직은 언어학에서의 고찰은 언어 파괴나 비문법성을 지적하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선도하는 내용이 많지만, 당위적으로 존재하는 언어의 일부로서 좀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대상화하는 시각으로 접근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문어 코퍼스는 여러 기관에서 상당한 양을 구축하고 있다. 21세기 세종계획에서 균형 말뭉치 1,000만 어절을 구축한 것을 비롯하여 연세대와 고려대, KAIST, 울산대 등 여러 곳에서 대규모의 원시 코퍼스와 균형 코퍼스를 구축하고 주식 코퍼스도 분량을 늘려 가며, 상업적인 포털 사이트에서도 구축한 코퍼스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에서는 남쪽 우리말과 더불어 북쪽 우리말의 코퍼스도 다량으로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의 코퍼스는, 전산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외국의 초대형 코퍼스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어 딥러닝 등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이 요구된다. 국립국어원에서 2019년부터 대규모로 벌이는 코퍼스 구축 사업은 이에 상응하는 자료 수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어 코퍼스에 관한 연구에는 서상규 외(2013), 강소영(2017) 등이 있으며, 연세 구어 말뭉치를 기반으로 구어의 빈도를 통계화한 서상규(2015)와, 구어 문어를 통합하여 명사와 명사구를 고찰한 배진영 외(2014)도 이 분야의 성과이다. 구어 의향법을 논의한 권재일(2004)이나 학생들이 사용하는 어휘를 조사한 장경희 외(2012) 등도 개인적으로 구축한 구어 코퍼스를 활용한 연구이며, 이후에도 개인이나 기관의 구어 코퍼스를 기반으로 한국어의 문법 현상을 연구한 논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구어에서는 문어의 문장과 대비되는 구어의 발화 단위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김태경 외 2005; 전영옥 2006; 이현희 2014 등), 비종결 어미들이 문말에 사용되는 용법에 대해 많은 관심이 나타나고 있다(이은경 1999; 유현경 2003; 조민하 2011 등). 구어에서 실현되는 부사의 양상(신지연 2002; 김혜영 2009 등), 구어에서 문장 성분이나 조사 등의 생략을 살피고(박유현 2005;

유혜원 2009 등), 구어의 문형에도 관심을 보이며(이소영 1996; 서은아 2004; 목정수 2010 등). 구어에서 나타나는 억양 등 음성적 특징도 논의하였다(남길임 2007; 정명숙 2009; 신지영 2014 등).

구어 연구에서는 화용론이나 텍스트, 화행 이론 등이 더욱 요구되면서 담화로서의 구어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전영옥 2009; 구현정 2011 등). 특히 구어의 특징이라고 할 담화 표지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김명희 2005; 송인성 2015; 심란희 2018 등).

문어보다도 구어가 오히려 더 중요한 우리말 요소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어 교육이나 한국어 교육에서도 구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박용익 2003; 지현숙 2009; 백승주 2016 등). 통번역이나 자연언어처리, 병리언어학 등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나고(김수진 2009 등), 사전 편찬(안의정 2009 등)에서도 수용되고 있다.

북쪽에서도 구어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다. 이미 1980년대에 구어 연구서인 최명식(1985)과 강상호(1989)가 나와 구어 연구가 본궤도에 올랐음을 말해 준다. 이 책들에서는 입말체(구어)의 어음, 형태, 문장, 의미의 구조적 특성을 설명하였다. 북에서 구어에 관한 연구 보고는 1989년 이후 논문집 <조선어문>에 주로 발표되어 2018년까지 30년 동안 26편의 구어 관련 논문이 실렸다.³⁾ 구어 연구는 강상호와 황선자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데, 전자는 입말의 특성과 기능에 관하여, 후자는 입말에서 출현하는 어휘에 관하여 각각 4~5편의 글을 발표하였다. 이 밖에도 입말 교재를 논의한 리장(2016), 입말과 글말의 관련성과 차이(최정규 2002; 김영매 2016), 토의 축약(장동철 2005)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구어 연구는 곧 실천적 분야에 활용되어 전산 정보(양하석 1996; 리승길 2011), 외국인을 위한 조선어(한국어) 교육(안중천 2013), 통역(정성일 2007) 등도 나왔다. 문영호 외(1993)을 보면 북에서도 문어 코퍼스를 다량으로 구축하였고, 또 이후에도 계속 확대하여 <<조선말대사전>>(1992, 2007) 등 사전 편찬에서도 활용하고 있으나 아직 구어 코퍼스가 크게 구축되었다는 보고는 접할 수 없다.

3) 이는 구어 담화에 대한 고찰로, 말소리의 음성, 음운적인 연구를 포함하지 않은 숫자이다.

남과 북의 구어를 함께 본 연구는, 주로 최명식(1985)와 강상호(1989)의 내용을 소개하고 남북 방송 드라마 한 편씩을 택하여 남북 구어를 비교한 김동연(1999)가 유일하다. 남북의 문어를 비교하는 경우에도 주로 양쪽의 언어 정책이나 차이나는 어휘를 설명하는 보고가 대다수이다.⁴⁾ 형태와 통사 또는 담화 차원에서 남북 구어나 문어의 직접 자료를 놓고 비교 논의한 연구는 아직 거의 없는 실정이다. 남과 북에서 구어와 관련하여 심도 있게 고찰한 연구 논저는 위에 든 목록 외에 훨씬 더 많이 있으나 지면 제약으로 간략히 줄인다.

3. 우리말 구어와 문어 표현의 특징

우리말 구어 연구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나온 저서인 북쪽의 최명식(1985)와 강상호(1989) 그리고 남쪽의 노대규(1996)에서는 문어체/글체에 비해 구어체/입말체가 가지는 문법적 특징을 언급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1) 최명식(1985: 1) 명사, 형용사의 사용 빈도수가 낮고, 감탄사, 대명사, 동사는 높다. 2) 토의 기능이 바뀌어 쓰이는 경우가 많고, 뜻빛깔이 다양하게 나타나며, 축약과 교체가 많다. 3) 격토는 사용 빈도수가 높고, 꾸밈토는 낮다. 4) 문장 구성 요소 가운데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 (2) 강상호(1989: 1) 구조적 간결성 2) 문법적 형태의 풍부성과, 문장 구조의 간결성과 다양성 3) 논리적 '비약' 현상 3) 발음에서 약화, 비뚤, 변화, 생략, 축약이 많이 나타난다. 4) 어음론적 특성이 어휘, 형태, 문장론적 특성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5) 고유 어휘가 기본, 감정 정서적 어휘, 축약 어휘가 많다.
- (3) 노대규(1996: 1) 비격식적 어휘, 주저어, 부가어, 지소어, 관용어, 비속어, 은밀어, 욕설어, 존대어, 유아어, 금기어, 두자어, 혼합어, 축약어, 유행어, 비표준어가 많고, 전문어 적다 2) 중의적, 반어적, 풍자적, 과장적, 비유적, 비축어적,

4) 이런 경우에도 구어나 문어라는 언급이 없이 그저 '남과 북의 언어' 정도로 놓고 서술하고 있지만 실상은 거의 문어에 한정되어 있다.

반복적 표현 많다. 3) 자유 어순, 단어나 문장 성분의 생략, 비문법적 문장 많음. 호격 사용 안됨. 접속 조사가 반복적으로 쓰이기도, 4) 비분절음운이 문장의 유형 및 의미와 밀접한 관계. 음운이나 음절 생략과 축약, 변동 많다.

위와 같은 특성들은 모두 남과 북의 우리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최명식(1985)는 매우 적은 책(문어 책 1권, 희곡 및 소설 6편)에서 일부분만을 조사 언어 자료로 삼았고, 강상호(1989)와 노대규(1996)에서는 그러한 자료조차 제시하지 않아 모두가 통계적인 신빙성을 담보하지 못하였다.⁵⁾ 본고에서는 비록 큰 규모는 아니지만 준구어 자료에서 각 어휘나 문법 형태가 사용된 양상을 수치화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본고에서 조사 대상으로 삼은 언어 자료는 아래와 같다.⁶⁾

(4) 남쪽 자료

- 1) 텔레비전 방송 드라마 대본: 12편(음절수: 196,763, 어절수: 62,315)
- 2) 단편소설: 13편(음절수: 207,925 어절수: 59,252)

(5) 북쪽 자료

- 1) 희곡: 14편(음절수: 196,252 어절수: 58,485)
- 2) 단편소설: 18편(음절수: 208,345 어절수: 57,851)

남과 북의 조사 대상 작품의 수가 다른 것은 양쪽의 언어 자료 분량을 비슷하게 맞추기 위한 때문이다. 북쪽 자료에서 음절수는 남쪽 자료와 비슷하면서 어절수가 남쪽보다 많이 적은 것은, 북쪽은 남쪽보다 합성어의 범위가 넓고 의존명사를 붙여 쓰는 등 띄어쓰기의 차이로 인한 것이다. 위 자료는 거의가 2000년 이후에 발표되었고 대체로 일상적인 생활을 다룬 내용의 작품들이므로 오늘날의 일상적인 우리말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희곡 작품보다는 드라마 대본이 조금은 더 실제 구어에 가깝다고 보아

5) 구어나 문어의 언어적 특징을 상식적으로도 적지 않은 항목들을 말할 수 있으며 위에서 언급된 특징들 가운데 대다수는 구체적인 조사와 분석을 하지 않아도 모어 화자라면 직감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서도 출현 용례를 조사하고 통계화하여 정확하고 신빙성 높은 해석을 해야 할 것이다.

6) 작품의 이름과 출전은 논문 끝에 첨부로 보일 것이다.

남쪽에서는 대본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지만, 북쪽에서는 방송 언어로서의 굴절을 피하기 위해 대본이 아닌 희곡을 택하였다.⁷⁾

남과 북의 구어와 문어 자료에서 쓰인 품사별 출현 빈도수와 용언의 전성 어미의 빈도수 그리고 출전을 보면 아래의 <표 1>, <표 2>와 같다. 수사는 명사와 구분하지 않았다. 이들 표에 나타난 빈도수는 구어와 문어를 비교한 최명식(1985)의 내용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 품사별 출현 빈도⁸⁾

| | 구 어 | | | | | 문 어 | | |
|-----|--------------------------|-------------|--------|------------|-------|-------------|-------------|-------|
| | 남 대본 | 북 희곡 | 남 소설 | 북 소설 | 계 | 남 소설 | 북 소설 | 계 |
| 명사 | 72/ 191 ⁹⁾ | 114/ 174 | 36/25 | 18/83 | 713 | 117/ 147 | 84/29 | 377 |
| 대명사 | 8/39 | 20/21 | 14/3 | 5/17 | 127 | 7/28 | 4/1 | 40 |
| 조사 | 50/122 | 106/ 120 | 41/15 | 16/76 | 546 | 102/ 131 | 76/30 | 339 |
| 동사 | 41/138 | 67/83 | 36/13 | 5/63 | 446 | 87/106 | 48/30 | 271 |
| 형용사 | 23/67 | 41/38 | 14/13 | 2/30 | 228 | 16/25 | 19/6 | 66 |
| 관형사 | 5/17 | 9/26 | 4/1 | 4/5 | 71 | 12/7 | 9/1 | 29 |
| 부사 | 21/70 | 50/45 | 14/8 | 3/18 | 229 | 27/34 | 18/7 | 86 |
| 감탄사 | 4/12 | 10/14 | 0/0 | 2/4 | 46 | 0/0 | 0/0 | 0 |
| 계 | 224/ 656 | 417/ 521 | 159/78 | 55/ 296 | 2,406 | 368/ 478 | 258/ 104 | 1,208 |

7) 리현철(2003)을 보면, 북의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방송물의 언어에는 정치적, 사상적 이념의 실현을 주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로 여기며, 이러한 목적성은 다른 출판물보다 방송물에서 더욱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8) 자료에 따라 수치의 합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작품마다의 작가가 특성이 있지만 코퍼스로 전산 입력할 때 줄 간격, 폰트 등 형식이 각기 달라서 하나의 쪽에 들어가는 언어 분량이 많고 적은 때문이 크다. 이는 이후의 통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표 1>에서 작품별 절대 수치의 차이보다는 품사별 상대 수치에 유의하기로 한다.

9) 계량된 수치에서 ' / '은 <표 2> 아래에 쓴 '출전'에서 보듯이 두 작품씩 계량한 것을 분리 표기한 것인데, 작품에 따라 출현 빈도에 차이가 적지 않음을 드러낸다.

〈표 2〉 용언의 전성 어미 출현 빈도

| | 구 어 | | | | | 문 어 | | |
|------|-------|-------|------|------|-----|-------|------|-----|
| | 남 대본 | 북 희곡 | 남 소설 | 북 소설 | 계 | 남 소설 | 북 소설 | 계 |
| 명사형 | 0/0 | 3/2 | 4/0 | 0/2 | 11 | 1/9 | 1/3 | 14 |
| 관형사형 | 11/37 | 19/21 | 13/4 | 2/9 | 116 | 38/32 | 23/3 | 96 |
| 부사형 | 0/9 | 6/4 | 0/0 | 0/7 | 26 | 1/9 | 4/1 | 15 |
| 계 | 11/46 | 28/27 | 17/4 | 2/18 | 153 | 40/50 | 28/7 | 125 |

출전: 남 대본: 〈불굴의 머느리〉 21쪽 중 2~3쪽 / 〈혼수〉 21쪽 중 2~3쪽
 북 희곡: 〈류선화〉 17쪽 중 2~3쪽 / 〈삶의 노래〉 14쪽 중 2~3쪽
 남 소설: 〈외판 날들〉 11쪽 중 9쪽 / 〈어느 추운 날의 스쿠터〉 14쪽 중 5쪽
 북 소설: 〈봄의 협주곡〉 16쪽 중 7쪽 / 〈6·15의 봄빛〉 16쪽 중 4쪽

위의 출전 자료 대본과 희곡에서 매우 적게 쓰인 지문은 수량화 조사에서 제외하고 대화문 부분만 출현 빈도를 세었고, 소설에서 설명 지문은 ‘문어’로, 대화문은 ‘구어로’ 산정하였다. 각 작품들은 분량이 너무 많아 전사한 코퍼스에서 한 쪽(페이지) 또는 두 쪽만을 계량하였는데,¹⁰⁾ 소설에서는 대화가 비교적 많은 쪽을 필자가 임의로 택하였다. 통계에는 작가 개인적인 문체 특성에 따른 차이를 줄이기 위해 각 영역별로 두 작품씩을 선정하여 계량하였는데, 작품별로 수치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는 구어 자료의 특성으로, 구어의 조사와 연구는 대규모 분량의 코퍼스를 대상으로 많은 인력이 함께 참여해야 함을 말해 준다고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최명식(1985)에서, 구어는 문어에 비해 명사나 형용사의 사용 빈도가 낮고 대명사나 동사는 높다고 하였지만, 위의 〈표 1〉을 보면 그러한 양상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문어에서는 감탄사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구어에서는 종종 나타날 수 있음은 충분히 생각할 만하다. 구어체는 단순문이 많아 문어체에 비해 관형사형이 훨씬 적게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표 2〉를 보면 어느 정도 그와 같이 나타난다. 그런데 위의 표를 보면 작품

10) 본고에서 〈표 1, 2, 3, 4〉의 통계적 조사는 한 개인이 작업하기에는 매우 과중하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통계치의 절대적인 의미보다 계량적 연구의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제기하는 데에 더 큰 의미를 두고자 한다. 〈표 5〉는 작업이 비교적 수월하여 조사 자료의 양을 크게 늘렸지만, 역시 보다 정확한 본격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자료를 조사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에 따라서 각 품사나 전성 어미의 출현 비율에 차이가 적지 않다.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이 작품을 쓴 작가들의 개인적인 문체 특성 때문인지, 본고에서 조사한 쪽의 내용에서 연유하는 개별성인지, 위 작품들이 충분히 구어적 특성을 갖지 못하는 것인지,¹¹⁾ 아니면 최(1985)의 논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지는 분명하게 알기 어렵다. 대규모의 자연 발화 구어 코퍼스를 구축하여 조사하여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표 3>은 문어 문장이나 구어 발화에서 문장 끝/발화 끝에 놓여 문장이나 발화를 종결하는 말의 형태를 조사한 것이다. 물론 이 말은 종결 억양을 동반함으로써 확실하게 종결 기능을 나타내지만 문자로 전사된 코퍼스에서는 형태와 앞뒤 문맥 등을 참고하여 종결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그만큼 정확성이 떨어진다. 본고에서도 그러한 문제는 그대로 안고 있다.

<표 3> 문장/발화의 종결 형태

| | 구 어 | | | | | 문 어 | | |
|----------|-------|-------|------|------|-----|-------|------|-----|
| | 남 대본 | 북 희곡 | 남 소설 | 북 소설 | 계 | 남 소설 | 북 소설 | 계 |
| 용언의 종결형 | 37/67 | 43/51 | 18/6 | 3/13 | 238 | 31/36 | 22/8 | 97 |
| 용언의 비종결형 | 1/9 | 6/9 | 2/4 | 2/1 | 34 | 1/0 | 2/0 | 3 |
| 명사 | 16/32 | 6/23 | 4/3 | 5/5 | 94 | 2/0 | 0/0 | 2 |
| 부사 | 1/7 | 5/4 | 4/1 | 0/0 | 22 | 0/0 | 0/0 | 0 |
| 기타 | 7/9 | 10/15 | 0/0 | 1/1 | 43 | 0/0 | 0/0 | 0 |
| 계 | 186 | 172 | 42 | 31 | 431 | 70 | 32 | 102 |

<표 3>으로 조사된 언어 자료의 출전은 <표 1>에서와 같다. 문어는 거의가 ‘-다’ 형의 용언 종결형으로 문장이 끝나는 데 반해, 구어는 용언 종결형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용언의 비종결형이 늘어난다. 하지만 구어는 명사로 발화가 끝나는 표현들이 더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남과 북에서 공통된다. 만약 위 언어 자료가 자유 발화 코퍼스라면 용언

11) 북 희곡이나 소설에서 대화문을 보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많아 실제의 일상적인 대화에 비해 다소 길고 형식성이 더해져 문어와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남 희곡이나 소설에서도 그러한 면이 없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북의 작품에서 현실적인 대화와 거리감이 있는 표현들이 더 많아 보인다.

의 비종결형(연결형, 전성형)의 비중이 좀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¹²⁾

아래는 구어와 문어로 표현된 문장/발화의 종류를 계량한 것이다. 출전 자료는 <표 1>과 같다. ‘발화의 종류’는 위의 <표 3>으로 본 ‘발화의 종결 형태’와 더불어 구어와 문어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대표적인 특징이라 할 것이다.

<표 4> 문장/발화의 종류

| | 구 어 | | | | | 문 어 | | |
|-----|-------|-------|------|-------|-----|-------|------|----|
| | 남 대본 | 북 희곡 | 남 소설 | 북 소설 | 계 | 남 소설 | 북 소설 | 계 |
| 단문 | 29/35 | 23/44 | 10/6 | 11/18 | 176 | 3/5 | 3/0 | 11 |
| 중문 | 1/1 | 3/3 | 0/0 | 0/0 | 8 | 0/2 | 1/1 | 4 |
| 복문 | 18/38 | 20/19 | 12/7 | 14/10 | 138 | 28/30 | 2/8 | 68 |
| 혼문 | 1/0 | 1/0 | 0/0 | 1/5 | 8 | 0/1 | 0/1 | 2 |
| 조각문 | 11/25 | 18/26 | 6/1 | 2/5 | 94 | 2/0 | 6/0 | 8 |
| 계 | 159 | 157 | 42 | 66 | 424 | 71 | 22 | 93 |

위의 <표 4>를 보면 구어는 문어에 비해 단문이 많고 특히 조각문이 두드러지게 많지만, 구어에서도 복문은 적지 않게 나타난다. 이에 비해 문어에서는 단문보다 복문이 월등하게 많으며 단문이나 조각문은 가끔씩 보일 뿐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남과 북이 같다. 만약 문어라고 해도 소설이 아닌 논리적인 설명문이나 논설문이라면 조각문이 더욱 적을 것이다.

‘보통 정도보다 훨씬 더’의 의미를 갖는 ‘매우’와 비슷한 뜻으로 쓰이는 정도 부사들이 여럿 있는데, 이들 가운데에는 구어나 문어에 두루 쓰이는 것도 있지만 구어 또는 문어에만 주로 쓰이는 것도 있다. 아래의 <표 5>에는 이러한 부사들 12가지를 들어 이들이 남북의 구어와 문어 자료에서 사용되는 양상을 살펴본다. 조사 범위는 앞의 (4)와 (5)에서 든 남과 북의 언어 자료 전체이다.

12) 실제로 조민하(2011)에서 사용한 자유발화 구어 음성 코퍼스나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구어말뭉치에서는 발화 말에서 비종결형 용언의 비중이 이보다 훨씬 높다.

〈표 5〉 ‘매우’의 의미를 갖는 부사의 출현 빈도

| | 구 어 | | | | | 문 어 | | |
|-------------------|------|------|------|------|-----|------|------|-----|
| | 남 대본 | 북 희곡 | 남 소설 | 북 소설 | 계 | 남 소설 | 북 소설 | 계 |
| 너무 ¹³⁾ | 6 | 0 | 4 | 1 | 11 | 7 | 3 | 10 |
| 매우 | 0 | 3 | 0 | 0 | 3 | 11 | 5 | 16 |
| 굉장히 | 3 | 0 | 2 | 0 | 5 | 3 | 0 | 3 |
| 꽤 | 7 | 0 | 0 | 1 | 8 | 5 | 1 | 6 |
| 대단히 | 0 | 4 | 0 | 1 | 5 | 6 | 4 | 10 |
| 되게 | 3 | 0 | 4 | 0 | 7 | 0 | 0 | 0 |
| 몹시 | 0 | 3 | 0 | 5 | 8 | 14 | 6 | 20 |
| 무척 | 0 | 5 | 1 | 4 | 10 | 8 | 13 | 21 |
| 아주 | 31 | 8 | 17 | 7 | 63 | 12 | 7 | 19 |
| 엄청 | 2 | 0 | 1 | 0 | 3 | 2 | 0 | 2 |
| 완전 | 7 | 0 | 6 | 0 | 13 | 0 | 0 | 0 |
| 꽤 | 0 | 2 | 0 | 0 | 2 | 1 | 7 | 8 |
| 계 | 59 | 25 | 35 | 19 | 138 | 69 | 46 | 115 |

(6) 가. 해볼수록 재미있고 또 것처럼 신통한 재주를 보여주는 《만능두뇌》들이 너무너무 기특해 유명이는 자리에서 고무공처럼 튕겨일어났다.

〈북 소설 안창준 〈입학시험〉〉

나. 평양혁명자유가족학원 개원식장에서는 원아들의 씩씩한 모습이 너무 대견하여 기쁨의 눈물을 금치 못하시더니 함박눈 내리는 이밤엔 생사여부를 모르는 한 중대장의 아들이 마음에 걸려 가슴 태우시는 녀사 앞에 절로 고개가 숙어지는 것이었다.

〈북 소설 황용국 〈크나큰 사랑〉〉

다. 한줌의 쌀이 들어있는 한사발 죽의 무게가 천만근의 무게로 가슴을 눌렀다. 두손으로 받쳐들기에는 너무나도 아픈 것이었다.

〈북 소설 류정옥 〈보석〉〉

라. “오늘은 그 선배님과 같은 부서에 있으니 너무도 좋은 자신의 운수에 절이라도 하고싶은 심정입니다.”

〈북 소설 류준 〈봄의 헝주곡〉〉

13) 부사 ‘너무’는 ‘일정한 정도나 한계를 훨씬 넘어선 상태로’라는 의미로 쓴 것은 제외하고 ‘매우’(‘보통 정도보다 훨씬 더’)와 비슷한 뜻으로 쓰인 것만 계량하였다.

북쪽 자료에서 ‘너무’가 ‘매우’라는 의미로 쓰인 예가 희곡에서는 안 나타나지만 소설에서는 대화문인 구어로 1번, 설명 지문인 문어로 3번이나 나온다. (6)은 모두 북쪽 소설인데, ‘너무’가 그 단독으로도 쓰이고 중첩어로도 나타나며 ‘-나, -도’와 같은 보조사와 결합형도 쓰여, ‘너무’가 ‘매우’라는 뜻으로 구어와 문어에서 모두 널리 쓰이는 남쪽과 용법상 크게 차이가 없다. 그러나 ‘너무’가 원래 의미인 ‘일정한 정도나 한계를 훨씬 넘어선 상태로’라는 뜻으로 쓰인 예가 북 희곡에 38번이나 나오지만 ‘매우’라는 뜻으로는 한 번도 없고, 소설에서도 원래의 의미로는 58번이 쓰였지만 ‘매우’라는 뜻으로 쓰인 출현이 적어, ‘매우’라는 파생 의미로 사용하는 용법이 남쪽보다는 덜 생산적인 듯하다.

이에 반해 ‘매우’는 남에서 구어로 쓰인 예가 없지만, 북에선 희곡의 대화에서 구어로 쓰여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남에서는 구어로 잘 쓰이지 않는 ‘대단히’와 ‘꽤’도 북의 희곡 대화에서 구어로 쓰였다.

(7) 의사: 그래요?! (소장을 보며) 예견했던 바대루 병세는 매우 악화된 것 같군요.

〈북 희곡 김형길 〈삶의 노래〉〉

(8) 동무가 지금까지 이동단지도원으로, 공청간부로 애들을 잘 키워온 것은 대단히 잘한 일ियो.

〈북 희곡 백인준 〈미래를 꽃피운 사랑〉〉

(9) “어머니, 이 며칠새 흰머리가 꽤 늘었어요.”

성희가 어머니의 머리에서 흰 머리오리를 뽑아준다.

〈북 희곡 백인준 〈최학신의 일가〉〉

(7)~(10)은 모두 북의 희곡이다. (7)에선 ‘매우’가, (8)에선 ‘대단히’, (9)에선 ‘꽤’가 구어로 쓰인 예가 보인다. ‘꽤’가 남쪽에선 구어든 문어든 용례가 거의 없어 사용이 활발하지 않지만 북에선 구어 외에 문어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굉장히’와 ‘엄청’은 남에선 구어와 문어에서 모두 쓰이지만 북에선 어디에도 안 보인다. 이들 단어는 남에선 많이 쓰이지만 북에선 일상적으로 잘 쓰지 않는 듯하다.

(10) ㄱ. “아내는 장자크 밀레노 감독의 ‘부유한 여인들’이라는 영화를 무척 좋아하는데, 그 영화에 춤을 추는 여자가 한 명 나옵니다.”

〈남 소설 손보미 〈그들에게 린디합을〉〉

나. 분이: … 아버지 장군님께서서는 아이들의 ‘판결’을 무척 기다렸다고 …

〈북 희곡 김윤보 〈꽃 피는 행복〉〉

(10)에선 ‘무척’이 남과 북에서 모두 구어에서 쓰였다. 그러나 남에서는 ‘무척’이 구어에서 널리 쓰이지 않는다. (10ㄱ)도 짧게 오가는 대화가 아니라 설명식 발언이라서 조금은 형식성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북에서는 구어나 문어 모두에서 ‘무척’을 비교적 널리 쓰는 양상이다.

남에서는 ‘되게’와 ‘완전’을 구어에서 많이 사용하여 남 대본이나 소설의 대화에서 여러 번 나오지만 북에서는 구어든 문어든 보이지 않는다. 이들 단어는 최근에 남쪽 구어에서 활성화하여 쓰임이 빈번하지만 북에서는 그러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래의 의미 그대로 쓰인 ‘완전히’라는 부사는 북의 소설에 3번, 희곡에 9번이나 나오지만, ‘완전’으로의 변화는 의미나 형태 모두 없는 것이다.

‘몹시’는 남과 북에서 쓰임이 크게 다르다. 남에서도 ‘몹시’는 많이 쓰이지만 모두 문어일 뿐 구어에서 쓰면 다소 어색하게 느껴지는데, 그러한 사정은 〈표 5〉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러나 북에서는 ‘몹시’가 문어로 쓰이는 외에 희곡이나 소설에서도 구어로 널리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1)은 북의 희곡과 소설의 대화에서 ‘몹시’가 쓰인 예이다.

(11) ㄱ. 수연: 언닌 몹시 서운해 하면서 떠났어요. 하지만 우리 언니도 이제 꼭 저의 심정을 리해해 줄 거예요.

〈북 희곡 김형길 〈삶의 노래〉〉

나. 그런데도 남편은 무엇을 당부했든가.

“당신이 몹시 바쁠텐데 … 왔구만.”

〈북 소설 김명옥 〈벼꽃의 향기〉〉

남과 북의 구어와 문어에서 모두 널리 사용되는 정도 부사로는 ‘아주’를

들 수 있다. <표 5>에서도 남북의 구어와 문어 자료 모두에서 아주 많은 용례를 보여준다. 특히 남의 구어에서 많은 예가 보인다.

‘매우’와는 다소 다르지만 본래 의미의 ‘너무’와 비슷한 뜻을 가진 ‘지내’가 남에서는 사용되지 않지만 북의 자료에선 드물게 나타난다.

- (12) ㄱ. 경숙: 암만해두 내 아까 영희의 아픈데를 지내 건드린것 같구나.
수연: 보라요, 내 뭐랬어요.

<북 소설 김형길 <삶의 노래>>

- ㄴ. 어제 저녁 한옥림은 아무래도 시간이 지내 늦은것 같아 오늘 아침에야
녀사께 전화를 걸었다.

<북 희곡 황용국 <크나큰 사랑>>

(12ㄱ)은 구어이고 (12ㄴ)은 문어이다. ‘지내’가 북의 소설에서 구어로 1번과 문어로 1번이 나오고 북의 희곡에서 4번이 나오는데, 그리 많이 쓰이지는 않는 듯하다.

<표 5>에서 보았듯이 ‘매우’와 비슷한 의미를 갖는 정도 부사들의 사용에서 남과 북은 공통되는 면을 많이 가지면서도 일부분 서로 차이를 보이는데, 그러한 차이는 문어보다 구어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남의 자료에서 ‘매우’ 의미를 갖는 여러 가지 부사들의 사용 빈도와 종류가 모두 북의 자료에서보다 많았다. 위의 <표 5>로 정리한 남과 북의 언어 자료는 그 분량이 비슷하지만 이와 같은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상의 <표 1>~<표 5>에서 일관되게 나타난 점은 남과 북의 자료에서 보이는 빈도수 차이가 문어보다 구어에서 더욱 많다는 것이다. 또한 구어에서는 각 조사 항목마다 같은 장르에서도 자료에 따라 빈도수에 차이가 적지 않음도 지적할 수 있다. 남과 북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공통성과 차이점은 구어와 문어 모두에서 매우 큰 규모의 남과 북 언어 코퍼스를 구축하여 면밀하게 고찰하여야 어느 정도라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변이 요인이 무척 다양한 구어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4. 마무리

북의 구어에 대해서 남에서는 아직 언어 자료를 제대로 접하거나 코퍼스를 구축하기가 어려워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물론 북에서도 남의 구어에 대한 연구가 아직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남과 북의 우리말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서로가 문어 못지않게 구어를 충실하게 고찰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이제 남북통일을 앞두고 다양한 방법으로 남북의 구어와 문어를 모두 적극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남북 우리말의 구어와 문어 표현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준구어 코퍼스를 통해 살피었다. 이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고찰해야 하는 방대한 과제이지만 매우 적은 규모로 몇 가지 문제에 대해 한정적인 고찰을 시도해 보았다. 품사별 출현 양상과 전성어미의 사용 빈도, 문말/발화말 종결 형태, 문장/발화의 종류, ‘매우’의 의미를 갖는 정도 부사들의 출현 빈도 등을 조사하였다. 이들은 구어와 문어에서 차이를 많이 보이는 문법 형태나 어휘이다. 남과 북의 언어 표현들은 대체로 공통되는 모습을 많이 가지지만 부분적으로는 서로 다른 점들도 있었는데, 이러한 양상은 문어보다 구어 표현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또한 같은 장르에서도 자료에 따라 조사 항목별 빈도에 차이가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한 올바른 파악은 남북 우리말의 구어와 문어 코퍼스를 대규모로 구축하여 양쪽의 언어를 충실하게 고찰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상호(1989), 《조선어 입말체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강상호(1991), 〈입말체 문장의 구조적 특성〉, 《조선어문》 84, 34~38, 사회과학출판사.
강소영(2017), 《구어 전자자료의 구축과 연구의 실제》, 지식과교양.
구현정(2011), 〈구어와 담화: 연구와 활용〉, 《우리말연구》 28, 25~56, 우리말학회.
권재일(2004), 《구어 한국어의 의향법 실현방법》, 서울대학교출판부.

www.kci.go.kr

- 김동언(1999), <남북한 구어체 비교 연구>, 《인문과학논집》 7, 73~94, 강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김명희(2005), <국어 의문사의 담화표지화>, 《담화와 인지》 12-2, 41~64, 담화인지 언어학회.
- 김수진(2009), <언어병리학과 학문간 구어연구 탐색>, 《한국어학》 45, 27~43, 한국어학회.
- 김영매(2016), <입말과 글말의 호상관계에 대하여>, 《조선어문》 183, 34~36, 조선과학원언어문화연구소.
- 김태경·김정선·최용석(2005), <구어 주석 코퍼스 구축을 위한 발화 단위 연구>, 《한국언어문화》 28, 5~26, 한국언어문화연구학회.
- 김혜영(2009), <구어에서 나타나는 정도부사의 사용과 의미>,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 남길임(2007), <구어 억양 단위의 통사적 상관성 연구>, 《어문학》 96, 21~50, 한국어문학회.
- 노대규(1996), 《한국어의 입말과 글말》, 국학자료원.
- 리승길(2011), <입말언어의 정보전달 특성과 입말연구>, 《조선어문》 162, 16~17, 사회과학출판사.
- 리장(2016), <입말 언어 교재의 몇 가지 특징>, 《조선어문》 181, 조선과학원언어문화연구소.
- 리현철(2003), <텔레비전 방송에서 언어의 기능과 특성>, 《조선어문》 129, 35~37,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목정수(2010), <구어 한국어를 위한 문법 모형>, 《한국어학》 46, 81~121, 한국어학회.
- 문영호(1993), 《조선어 빈도수 사전》,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 박용익(2003), 《수업대화의 분석과 말하기 교육》, 역락.
- 박유현(2005), <현대 국어 조사 '-가'의 구어에서의 비실현 양상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 배진영·최정도·손혜옥·김민국(2014), 《구어 문어 통합 문법 기술》(1, 2), 박이정.
- 백승주(2016), <한국어교육에서의 실제성 연구를 위한 구어의 특징 재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44, 154~190,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 서상규·안의정·봉미경·최정도·박종후·백해파·송재영·김선혜(2013), 《한국어 구어 말뭉치 연구》, 한국문화사.

- 서상규(2015), 《한국어 구어 빈도 사전》(1, 2) 한국문화사.
- 서은아(2004) 〈구어와 문어의 문형 연구〉, 《한국어학》 24, 99~130, 한국어학회.
- 송인성(2015), 〈국어 담화표지의 기능과 운율〉,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 신지연(2002), 〈구어 정도부사의 표현적 기능〉, 《어문연구》 40, 125~140, 어문연구학회.
- 신지영(2014), 〈구어 연구와 운율〉, 《한국어의미학》 44, 119~139, 한국어의미학회.
- 심란희(2018), 〈한국어 담화표지의 기능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 안의정(2009), 《국어사전에서의 구어 어휘 선정과 기술 방안 연구》, 한국문화사.
- 안종천(2013), 〈조선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에 대한 조선어 입말체 토교육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어문학》 59(1), 김일성종합대학.
- 양하석(1996), 〈입말의 분석과 합성에서 나서는 정보언어학적 문제〉, 《조선어문》 103, 22~26, 사회과학출판사.
- 유현경(2003), 〈연결어미의 종결어미적 쓰임에 대하여〉, 《한글》 261, 123~148, 한글학회.
- 유혜원(2009), 〈구어에 나타난 주격조사 연구〉, 《한국어의미학》 28, 147~169, 한국어의미학회.
- 이상태(1983), 〈입말에 대하여〉, 《모국어교육》 1, 21~42, 모국어교육학회.
- 이소영(1996), 〈현대 국어 구어 문형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논문.
- 이은경(1999), 〈구어체 텍스트에서의 한국어 연결 어미의 기능〉, 《국어학》 34, 167~198, 국어학회.
- 이한규(1999), 〈한국어 담화 표지어 ‘뭐’의 의미〉, 《담화와 인지》 6(1), 137~157, 담화인지언어학회.
- 이현희(2014), 〈구어성 언어 단위의 설정과 그 유형〉, 《한글》 303, 41~76, 한글학회.
- 장경희·이삼형·이필영·김명희·김태경·김정선·전은진(2012), 《초·중·고등학생의 구어 어휘 조사》, 지식과교양.
- 장동철(2005), 〈입말체의 형태조성에서 나타나는 토의 줄임현상〉, 《조선어문》 139, 38~39, 사회과학출판사.
- 전영옥(2006), 〈구어의 단위 연구〉, 《한말연구》 19, 271~299, 한말연구학회.
- 전영옥(2009), 〈구어와 담화 연구〉, 《한국어학》 45, 45~93, 한국어학회.

- 정명숙(2009), <구어연구를 위한 음성학·음운론의 과제>, 《한국어학》 45, 95~112, 한국어학회.
- 정성일(2007), <입말의 특성과 통역>, 《조선어문》 147, 사회과학출판사.
- 조민하(2011), <연결어미의 종결 기능과 억양의 역할>,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 지현숙(2009), <교육 문법에 있어서 한국어 구어 문법을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에 대하여>, 《한국어학》 45, 113~139, 한국어학회.
- 최명식(1985), 《조선말 입말체 문장 연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최정규(2002), <입말과 글말의 특성에 대한 연구>, 《조선어문》 125, 31~33,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황선자(2010), <입말 어휘의 의미적 특성>, 《조선어문》 157, 41~43, 사회과학출판사.
- 황선자(2010), <해방후 조선어 입말 어휘의 발전 풍부화의 내용>, 《조선어문》 159, 42~43, 사회과학출판사.
- 황인교(1999), <구어 교수 이론의 정립을 위하여>, 《한국어교육》 10(1), 283~30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島田勇雄(1983), 《口語文法: 文論中心》, 東京: 明治書院.
- Biber, D., Johansson, S., Leech G., Conrad S., & Finegan E. (1999) *Longman Grammar of Spoken and Written English*, longman,
- Brazil, D. A (1995). *Grammar of speech*. Oxford University Press.
- Leech G., Rayson P., & Wilson A. (2001). *Word Frequencies in Written and Spoken English*. Longman.
- 통일방송 <http://www.sptv.co.kr/>
- 국립국어원언어정보나눔터 <https://ithub.korean.go.kr/user/guide/corpus/guide1.do>

〈첨부〉 조사 언어 자료

- (1) 남쪽 드라마 대본(12편)
 2003 SBS 혼수 (제3부)
 2004 KBS2 꽃보다 아름다워 (제2부)

2008 KBS1 너는 내 운명 (제1회)
 2009 MBC 내조의 여왕 (제15회)
 2010 KBS1 웃어라 동해야 (제30회)
 2010 KBS2 수상한 삼형제 (제5회)
 2010 SBS 대물 (제2회)
 2010 SBS 인생은 아름다워 (제5부)
 2011 MBC 불굴의 며느리 (제2회)
 2015 tvN 오 나의 귀신님 (제2부)
 2015 KBS2 프로듀사 (제2부)
 2016 MBC W (제2회)

(2) 남쪽 단편소설(13편)

2001 김성동 <꿈> 《꿈》 창작과 비평사.
 2002 김별아 <첫사랑> 《꿈의 부족》 문이당.
 2004 김채원 <2000년의 꽃밭> 《지붕밑의 바이올린》 현대문학.
 2008 정영문 <유원지에서> 《목신의 어떤 오후》 문학동네.
 2008 하성란 <그 여름의 수사> 《제32회 이상문학상 작품집》 문학사상사.
 2010 권여선 <빈 찻잔 놓기> 《내 정원의 붉은 열매》 문학동네.
 2011 이화경 <로맨스 소설> 《화투치는 고양이》 웅진싱크빅.
 2012 배상민 <어느 추운 날의 스쿠터> 《짧은 소설》 문학나무.
 2012 배이유 <바래고 지워지는> 《도요문학무크 1》 도요.
 2012 백수린 <밤의 수족관> 《짧은 소설》 문학나무.
 2012 손보미 <그들에게 린디합을> 《짧은 소설》 문학나무.
 2012 이정 <외판 날들> 《한국창작소설연구회 제3집》 글뚝.
 2012 안명삼 <사무실> 《2012 신춘문예 당선소설집》 한국소설가협회.

(3) 북쪽 희곡 14편

1989 호도균 <참된 행복> 《조선문학》(1989년 8호),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6 김하천 <산복숭아꽃> 《조선문학》(1996년 7호), 문학예술종합출판사.

- 1997 서상각 <어머니의 고백> 《조선문학》(1997년 12호), 문학예술종합출판사.
- 2000 최현구 <처녀시절이 끝날 무렵> 《조선문학》(2000년 9호), 문학예술종합출판사.
- 2001 김형길 <삶의 노래> 《조선문학》(2001년 9호), 문학예술종합출판사.
- 2004 백인준 <미래를 꽃피운 사랑> 《압록강을 넘나들며》 문학예술출판사.
- 2006 미상 <높은 교단> 《조선예술》(8), 문학예술출판사.
- 2007 김윤보 <꽃 피는 행복> 《아동문학》(12), 문학예술종합출판사.
- 2008 백인준 <금강산 처녀> 《푸른 소나무》 문학예술출판사.
- 2009 김자경 <류선화> 《조선예술》(3) 문학예술출판사.
- 2009 백인준 <최학신의 일가> 《성장의 길에서》 문학예술출판사.
- 2014 리기창 <해당화> 《진달래 필 무렵》 문학예술출판사.
- 2017 한순희 <사랑> 《조선문학》(2017년 2호), 문학예술출판사.
- 2018 김옥인 <영원한 집> 《조선문학》(2018년 1호), 문학예술출판사.

(4) 북쪽 단편소설 18편

- 2000 강귀미 <마지막 배우수업> 《조선문학》(2000년 5호), 문학예술종합출판사.
- 2000 김창수 <차번호 “만-하나”> 《조선문학》(2000년 10호), 문학예술종합출판사.
- 2006 김영철 <영남이가 찾은 보물> 《아동문학》(6), 문학예술종합출판사.
- 2006 안창준 <입학시험> 《청년문학》(1), 문학예술종합출판사.
- 2008 박영진 <부산진 하늘가에> 《청년문학》(5), 문학예술종합출판사.
- 2009 김명옥 <벼꽃의 향기> 《청년문학》(2), 문학예술종합출판사.
- 2009 장혁 <난로불> 《봄날의 추억》 금성청년출판사.
- 2010 류정옥 <보석> 《명사수》 문학예술출판사.
- 2010 황용국 <크나큰 사랑> 《밝은 미소》 문학예술출판사.
- 2012 류준 <봄의 협주곡> 《겨레는 6.15에 산다》 평양출판사.
- 2012 송례성 <애기벼모> 《계승자들》 금성청년출판사.
- 2014 조창근 <6·15의 봄빛> 《추억》 평양출판사.
- 2014 황용남 <12월의 그이> 《불의 약속》 문학예술출판사.
- 2016 리희찬 <단풍은 락엽이 아니다>(장편, 일부) (2018), 아시아.
- 2017 김명호 <무역과장> 《조선문학》(2017년 1호), 문학예술출판사.

2017 윤상근 〈약속〉 《조선문학》(2017년 3호), 문학예술출판사.

2017 조항미 〈세번째 가로등〉 《조선문학》(2017년 3호), 문학예술출판사.

2018 리명순 〈박수소리〉 《조선문학》(2018년 1호), 문학예술출판사.

홍종선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hongjs@korea.ac.kr

논문 접수일: 2020년 01월 26일

논문 심사일: 2020년 02월 19일~02월 29일

게재 확정일: 2020년 03월 05일